



밍후이왕 회화 작품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니 기쁨이 가득하네': 화면은 중국의 민중들이 진상을 알고 진선인(眞·善·忍)을 인정해 복을 받은 후, 사람들에게 상서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준 파룬따파의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을 묘사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차단을 돌파하는 방법

1. Email로 받기:

해외 이메일로 ziyoumen99@gmail.com에 전자우편을 보내 '자유문(自由)' 소프트웨어를 받는다. (주의: 제목 칸이 비어있으면 안 되며,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면 된다.)

2. 웹주소로 받기:

아래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인 '자유문'을 다운로드 받는다.

◆컴퓨터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버전: <https://j.mp/fgv88>

(도움말: 국산 웹 브라우저로 위의 인터넷 주소를 열지 못할 수 있으므로, IE, Edge, Chrome 혹은 Firefox 등 웹 브라우저로 여시기 바랍니다.)



3. 파룬따파 밍후이왕에서 더 자세히 진상 알아보기:

www.minghui.org

[자유문] 컴퓨터 PC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洪福

'고집불통' 모친이 겪은 신적(神迹) | 재난위기가 오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제 20 기



밍후이 정기간행물 | MINGHUI.ORG | 격월간

목차

서두 일문

선한 일념에 복신이 따른다3

구사일생

‘고집불통’인 모친이 겪은 신적(神迹)4
 20년간 마약에 빠진 스웨덴 음향사, 기이한 책 만나 중독에서 벗어나다 ...10
 허난 ‘혈화(血禍)’ 피해자가 연공하고 다시 태어나다12
 베트남 소녀가 자신의 인생 아이콘을 찾다14
 녹내장으로 시력 잃어가던 루마니아 프로그래머가 호전되다16

평안을 지키는 방법

생명을 구하는 좋은 방법, 믿은 사람이 이익을 보다19
 수술 전 흉수증이 신기하게 사라지다22
 어린 외손자의 괴질을 치료한 목걸이23
 교통사고 당한 쓰촨성 노인, 파룬궁 호신부가 목숨을 구하다 25
 장시 풍성발전소 대형 사고 생존자의 회고26

혜안으로 진실을 깨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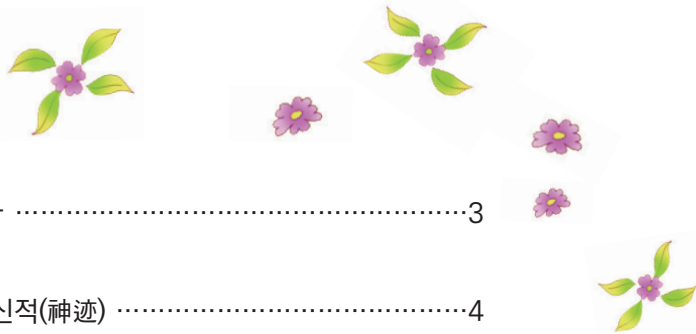
재난위기가 온다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28
 왜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다고 하는가?30

세도민심

중국 경찰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다32
 중국 서민: 파룬궁 진상 자료를 보는 세 가지 이유34

부록

조사보고: 파룬궁이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탁월한 효과9
 세계 각 민족 억만 명과 인연을 맺은 ‘천고기서(千古奇書)’15
 파룬따파 세계 홍전(弘傳)18
 ‘양성만보’: 노소 모두가 파룬궁을 연마하다21



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다.

무엇이 좋은 사람인가? 한 사람이 유언비어 속에서 미망 속에서, 권세의 위협 속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박해당할 때, 압력을 무릅쓰고 진상을 알아보고, 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동정하며, 심지어 그들의 편에 서서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좋은 사람이다. 시련 속에서 진짜 금을 볼 수 있다.

3. “당신이 한 말은 다 맞는데 공산당은 너무 강하잖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그 로마제국은 너무 강해서 아무도 그것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분별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줄 누가 알았으랴, 결국 이 거대한 물건은 와르르 무너졌다. 사물은 모두 생겨나고 발전하여 쇠망하는 과정이 있다. 만약 힘을 써서 강대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앞당겨 망하고 싶은 거라고 나는 말한다! 초강대국의 소련은 7일 사이에 해체되었다. 차우셰스쿠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루마니아 공산당이 100년을 통

치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며칠 후에 자신은 총살됐다. 보아하니 강대함은 왕왕 종말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므로, 만약 극악무도하다면 반드시 오래지 않아 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빨리 멀리하라. 이것은 경험이다.

사실, 나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 공산당이 ‘텐안면 분신자살’이란 우스꽝스런 극을 편성한 것도 파룬궁 수련인을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 사람을 대처하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파룬궁 수련생은 살생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죄가 있다고 말하기에, 그 연극이 나오자마자 그들은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연공하는 사람을 전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기극은 우리를 겨냥한 것으로, 중공이 이런 사기극을 연출해낸 진짜 목적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 사람을 모해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파룬궁의 것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큰일이 찍어빠진 홍조 말로에 나타난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

상식으로 '텐안면 분신자살' 사기극이 죄를 덮어씌운 것을 간파하다



2001년 1월 23일, 중공은 텐안면 광장에서 ‘분신자살’ 조작극을 만들어 파룬궁에 죄를 덮어씌웠다. CCTV에서 방영한 녹화에서 여러 곳의 허점이 매우 뚜렷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른바 ‘분신자살자’ 왕진동이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한 후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가 든 녹색 페트병은 손상 없이 온전했다. 뒤에 있던 경찰은 왕진동이 이상한 구호를 외치기를 기다렸다가 소화 담요를 왕진동의 머리에 덮었다. 분신자살은 돌발 사건인데 CCTV에는 가까운 거리 화면을 카메라에 잡을 수 있고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녹음할 수 있었다.

퇴를 권유하고, 이후 더는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지 말라고 권유했다. 그러자 경찰은 흔쾌히 심퇴를 하고는 “우리는 파룬궁에 관한 일은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파룬궁 수련생 전(珍) 씨는 장터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경비원 3명에게 납치돼 파출소로 끌려갔다. 파출소에 도착한 전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못 다 배포한 진상 자료를 품에 안고 있었다. 경비원이 파출소 경찰에게 공로를 보고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은 “왜 그녀를 붙잡아 왔나요? 빨리 풀어줘요.”라고 말했다. 경비원이 “여기 자료가 한 봉지나 있어요.”라고 하자, 경찰은 “우리한테 아직 많이 있으니 됐어요.”라고 했다. 전 씨는 자료를 안고 차에서 내린 뒤 택시를 잡아 다시 장터에 나와 자료를 계속 배포했다.

경찰이 쫓아와 ‘9평’을 달라고 하다

산시(山西)성 모 현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본 지역의 경찰이 가장 흉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상황이 바뀌었는데 여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모두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한번은 파룬궁 수련생이 경찰관을 만났는데 경찰이 그를 쫓아와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9평)’을 달라고 했다.

또 한번은 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 같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마지 못해 파룬궁 수련생의 손에 있는 진상 자료를 가지고 가 보았고, 또 파룬궁 수련생에게 빨리 가라고 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경찰도 각성하고 있다고 감탄했다.

중국 서민: 내가 파룬궁 진상 자료를 보는 세 가지 이유



나는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지만, 파룬궁의 진상 자료를 본다. 왜? 도리는 아주 간단하다:

1. 중공은 소식을 봉쇄한다.

왜 소식을 봉쇄하는가? 이런 소식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봉쇄하는가? 내가 알지 못하게 봉쇄하는 그것은 분명히 나와

관계있을 것이다. 나를 더욱 엄밀하게 봉쇄할수록 나와 관계는 아마도 더 크고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래서, 겹겹의 봉쇄를 돌파해야 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지혜다. 중요한 때에 아이큐를 본다!

2. 많은 사람은 “그들 연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연공을 하지 않는 나도 좋은 사

선한 일념에 복신이 따른다

글/ 즈전(智真)

옛날 덕이 높은 중이 말한: “일념지선(一念之善), 경성경운(景星庆云), 일념지악(一念之恶), 열풍질우(烈风疾雨)”란 선한 일념이 상서로운 징조를 가져다주고, 나쁜 생각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포악한 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옛사람들은 “심체(心体)의 일념이 천체(天体)에서 내원한다.”라고 말했다. 심체는 곧 천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천체우주를 가리킨다. 대자연의 변화와 인체 내부의 변화는 상응하는 것으로, 옛사람은 천인합일(天人合一)·천인감응(天人感应)·선과 악에 응보가 따른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천도를 따라야만 천지와 하나로 될 수 있고 오래 지속하고 영원할 수 있다. ‘태상감응편 예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원나라 원자실(元自实)은 무재(繆材)의 배은 망덕함을 증오해, 오경에 칼을 들고 죽이러 갔다. 비구니 암자를 지날 때 경서를 읽고 있던 암자 주인 현원(軒轅) 옹이 기형 귀신 수십이 원자실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지없이 흉악했다. 잠시 후 원자실은 가던 길로 되돌아왔다. 현원 옹은 원자실의 뒤에 금관을 쓰고 옥을 단 이들이 따르는 것을 봤는데, 향기로운 꽃이 그를 빼곡히 에워싸 매우 장엄했고 모두 화기에애한 표정이었다. 현원 옹이 원자실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자,



원자실은 “무재가 신의를 저버려 너무 원망스러워 죽이러 갔습니다. 그 집 앞에도 다다라, 무재가 제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제가 그를 죽이면 그 처자식과 노모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 같아, 마음에 걸려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원 옹은 본 것을 알려주며 “당신의 악한 일념에 흉악한 자가 따라다녔고, 선한 일념에 복신이 따르고 있었네. 당신의 일은 신명이 이미 알고 있으니 꼭 큰 복이 있을 것이네!”라고 축하했다. 이후 원자실은 줄곧 선행을 했고 나중에 과거에 합격해 경상(卿相) 관직에까지 이르렀고 무재는 난군 속에서 피살됐다.

선한 일념은 모든 선의 근원으로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악한 일념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 여기서부터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다. 지극한 선념은 천지를 감동하게 할 수 있으니, 설령 위난의 고비일지라도 길흉을 모면하고 위험을 타개할 수 있다. 하늘은 인간에게 친하지도 않지만 무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늘 선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고집불통’ 모친이 겪은 신적(神迹)

글/ 스투(石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어머니께서 직접 체험하신 그 신적(神迹)을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이 신기한 경험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현실 이익을 중시하는 강한 여인

나의 어머니는 항상 현실 이익과 체면을 중시하는 강한 여인이다. 성질이 포악하지만 세상 물정을 잘 다루고, 연줄을 잡고 뒷문거래에 능숙한 강한 외모와 남다른 감정 지수가 있지만 실익이 없는 일에는 여태까지 하찮게 여겨왔었다.

1996년 나는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파룬궁(法輪功)으로 잘 알려진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면서 매우 많은 것을 배웠다.

1998년 어머니와 처음으로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건강에 좋고, 화를 잘 내는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어머니께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바랐다. 무신론을 굳게 믿었던 어머니는 기공은 모두 거짓이라 주화입마(走火入魔)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내가 파룬궁을 소개하자 어머니의 눈



빛은 경시하거나 심지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난 후의 큰 변화로 인해 이웃과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어 어머니도 더는 간섭하지 않았다.

1999년 7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됐다. 파룬궁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00년 나 홀로 베이징으로 청원을 갔다가 집으로 송환됐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 전담 기구 ‘610’ 사무실을 설립했다. 우리 지역 ‘610’은 공안과 함께 어머니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의 간부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재산을 몰수했다. 어머니에게 이것은 정말 크나큰 치욕이었다! 내가 수련에 들어간 것도 못마땅해하던 어머니로서는 정부와 직장 상사까지 나섰으니 어머니를 망신시켰다고 분노에 차 있었다.

내가 구속된지 15일 만에 집에 돌아오자

파룬궁 수련생 두 명이 약 3~4m 너비 도로 양쪽을 걸으며 행인들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주고 삼퇴를 권유하고 있었다. 가고 있는데 그중 한 파룬궁 수련생이 갑자기 두 경찰관이 그녀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길 건너 또 다른 파룬궁 수련생은 손에 진상 자료를 들고 세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었다.

그때 이미 두 경찰관이 다가와 “파룬궁(수련생)이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라고 말하고서 두 사람은 모두 길 건너편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바라본 후 서로 웃으며 지나갔다.

이때 길 건너편의 파룬궁 수련생도 경찰을 보았고, 두 수련생은 의중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계속 하던 일을 했다.

경찰이 곳곳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다

파룬궁 수련생 조 여사는 허난(河南)성의 어느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 지역에 진상을 잘 아는 좋은 경찰이 있다고 말했다.

언젠가 조 씨는 슈퍼마켓에 가던 중 이 경찰을 만났는데 그는 “누님 어디 가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조 씨가 마트에 쇼핑하러 간다는 말에 그는 “밖에 사복경찰이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주거지역에 있는 또 다른 파룬궁 수련생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밀고로 파출소에서 사람을 파견해 오랫동안 미행을 당했다. 이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이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에게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주려고 했다. 파출소 경찰이 이 수련생을 불법으로 구류한 후, 이 경찰에게 이 수련생 집의 상황과 그의 집이 자료 점이 맞는지 물었다. 그는 “그 집에 자주 갔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도 가 본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수련생을 괴롭힌 적이 없다. 조 씨는 이 경찰이 그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구역 내의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요”

올해 3월 어느 날, 쓰촨(四川)성 쑤닝(蘇寧)시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두 명이 경찰에 납치됐지만 1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 두 파룬궁 수련생은 파출소에 끌려간 뒤 경찰이 그들에게 “남들이 신고한 것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라고 합니다. (파룬궁이) 좋으면 집에서 연마하세요. 어서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진상 편지도 보내옵니다. 우리는 악행해서 보응당하기 싫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 두 파룬궁 수련생은 파출소에서 한 바퀴 거닐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파룬궁 관련은 거의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파룬궁 수련생 위밍(宇明)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된 대학 동창을 찾아가 삼

중국 경찰, 각자의 방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하다

중공의 파룬궁(法輪功) 박해 정책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파룬궁에 대한 기층 경찰들의 태도는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최근 밉후이왕은 각 지역 경찰들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주동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중공이 늘 말하는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것과 부합했다.

경찰차는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갔다

허베이(河北)성 모 시에 사는 장 씨 아주머니는 올해 75세로, 설 전날 정오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 그녀가 한 주택 단지에 와서 진상 전단을 자전거 광주리에 넣는 것이 한 노부인의 눈에 띄었다. 노부인은 장 씨의 자전거를 한사코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고는 또 60여세의 노인을 불러왔다. 두 사람은 장 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파출소에 전화했고,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자, 또 전화를 걸었다. 경찰차가 마침내 왔고 차에서 내린 젊은 경찰관은 노인과 노부인의 ‘비상 상황’을 듣고 나서 몸을 돌려 장 씨에게 온화하게 말했다. “별일 없어요. 파출소에 가서 등록만 하면 돼요.”라고 하고, 파출소 위치를 알



려주었다. 그리고 기사에게 몇 마디 말하고는 장 씨에게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했다.

노인과 할머니는 경찰이 장 씨를 경찰차에 태우지 않은 것을 보고 초조해하더니, 또 자전거를 붙잡고서 사람이 도망가면 어떡하느냐고 물었다. 경찰이 “도망갈 수 없어요, 정문 앞에 경찰차가 아직 한 대 있는데, 그녀는 중간에서 타고, 우리 차는 뒤에서 따를 겁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손을 놓았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 대문 앞에 도착한 장 씨 아주머니는 경찰차가 보이지 않아 모퉁이를 돌아서 계속 앞으로 갔다. 다시 뒤돌아보니 뒤따르던 경찰차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갔다. 장 씨 아주머니는 이 경찰들이 진상을 아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다.

길에서 진상을 알릴 때 경찰이 못 본 척하다

작년 1월 초, 산둥(山東)성 어느 시의 파

어머니는 끝내 화가 치밀어 파룬궁을 계속 연마하면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했다. 어머니의 상태는 거의 히스테리였다. 그녀 앞에서 파룬궁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는 한 글자도 언급할 수 없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나를 향해 울부짖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모자 사이에 깊은 장벽이 생기게 돼 어떤 교류도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내심으로 내가 너무 깊이 ‘중독’됐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를 ‘중독’에서 구하겠다고며 ‘610’과 지역 주민 사무소와 협력해 나를 속여 중공 감옥이 운영하는 세뇌반으로 데려갔었다. 또 중공에 속아, 아들이 연공을 한 후 멍해졌다며 함부로 한 말이 신문에까지 실렸다. 심지어 내가 없는 틈을 타 대법서적을 불태우고, 아울러 죽든지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나는 매우 슬펐다! 그녀는 나의 친인이었지만 당시 우리 모자 사이에는 믿음과 위로, 격려가 없었고 끊임없이 수련을 중단하라고 아들에게 가하는 압력뿐이었다. 나는 매우 슬프고, 걱정됐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 이 일들이 큰 죄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입만 열면 어머니는 더러운 말로 즉시 내 말을 끊어버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 마치 단단한 돌맹이 같았다.

내가 어머니를 망신시켰다고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내심으로 나를 무시했고 중공이 정의한 ‘우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 모자간의 소통은 거의 없었고 그 상태가 8년이나 지속됐다.

모자간의 긴 대화

2008년 4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복부 통증으로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약간의 진통제만 주었다. 9월 초 증세가 심해졌다고 느낀 어머니는 부인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포도상귀태 암 진단을 받았다.

이어진 화학요법으로 인해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허약한 몸은 원래 대량의 영양을 보충해야 하지만, 어떤 국밥도 가까이만 하면 구토를 그치지 않아 밥을 먹는 것이 장기전으로 변해 한 끼 밥을 항상 몇 시간을 대접해야 했고, 앓을 수도 걸을 수도 없어 매번 화학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땐 엘리베이터가 없어 내가 업고 7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뼈까지 아프기에 매우 조심해야 했

다.

3단계 연속 화학요법이 무효화된 뒤 암세포는 폐와 신체 일부로 확산됐다. 의사가 화학 치료 결과를 우리에게 말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화장실에 숨어 절망하며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의사는 마지막 한 수를 내놨는데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화학적 반응이 뛰어난 약이었다. 의사는 이 약이 효과가 없으면 그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집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이 약은 기존 화학치료제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보이고 실험 단계였으므로, 사용하려면 환자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신이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서명이 필요했다.

나는 어머니께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이것이 목숨을 애걸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도 매우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파룬궁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아픔이었다. 그러나 치료할 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내가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었다!

서명을 마친 후 아직 일주일간 휴식할 수 있어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파룬궁의 진상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화학요법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지금 어머니의 몸은 이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신변에 있는 많은 불치병 환자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회복됐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어머니에게 말문을 열어야 할까?

나는 어머니를 업어서 소파에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비스듬히 누우셨다. 나는 만두 열개를 끓여 온종일 밥도 못 드신 어머니께 드렸는데, 한 개 반만 드시고는 더 먹을 수 없었다. 잠시 후 토하고 싶어 해 화장실로 부축해 갔고 토하고 나서 다시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셨다. 나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서 “엄마, 나는 엄마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재빨리 눈치채고 “무슨 얘기가? 너는 그까짓 것밖에 없느냐? 듣고 싶지 않아 들을수록 괴롭다.”라고 했다.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성대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람들을 도와 ‘짐승의 기호’를 지우고 있다. 당신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의 탈퇴를 동의하거나 성명할 때 당신의 몸에 있는 ‘짐승의 기호’가 지워질 것이고, 당신이 더는 공산당(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므로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할’ 때 함께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미래는 반드시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하늘이 인류 역사와 미래를 안배해 놓았으나 다른 사람 대신 미래를 선택해줄 수는 없다. 선과 악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그래서 신의 온갖 고심한 배치와 경고는 인류가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닦혔을 때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선의의 권유를 거절하지 말고 자신에게 영원한 한을 남기지 말기를 바란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3억 중국인의 중공 탈퇴 일으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약칭 ‘9평’)은 “공산주의를 투철하게 분석한 적어도 100년에 영향을 끼치는 저서”로 불리고 있다. 이는 2004년 11월 발표된 ‘대기원시보’ 시리즈 사설에서 중공의 기만, 폭력, 사이비 종교와 강패 본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고 재앙을 초래한 지 한 세기 남짓 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 특히 중공에 대해 평가했다. ‘9평’이 나오면서 중국인들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하는 ‘삼퇴’(三退-중공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성명)의 물결이 일어났다. 2021년 11월 현재 3억8600만 중국인이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서 삼퇴를 선언했다. 현재 매일 ‘3퇴’를 선언하는 사람은 약 6만 명이다. ‘9평’과 ‘삼퇴’에 대해 17년 동안 중공은 애써 소식을 봉쇄하고 있다.

삼퇴 성명 방법 (실명, 가명 모두 유효)

- 해외 전자 우편함으로 삼퇴 성명을 탈당 우편함에 보낸다: tuidang@epochtimes.com
- 봉쇄돌파 프로그램으로 탈당 사이트에 접속해 삼퇴성명을 한다: tuidang.epochtimes.com
- 전 세계 탈당 센터: 전화: 001-416-361-9895
- 팩스: 001-201-625-6301
- 먼저 성명서를 공공장소에 붙이고 나중에 인터넷에 접속해도 되며, 파룬궁 수련생에게 ‘삼퇴’를 부탁해도 된다.

왜 '삼퇴'하면 평안을 지킨다고 하는가?

“나는 평민이고 중공의 그러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설령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괜찮을까?

중국인은 대다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 가입했기에 사실 중공의 일원이다. 사람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가입할 때 혈(붉은)기 앞에서 사악한 당에게 목숨을 바치겠다는 독한 맹세를 했다. 그럼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키려 할 때 중공 조직에 있는 매개 분자가 함께 봉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파룬궁 수련생들이 삼퇴(중공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성명)를 권하고, ‘삼퇴’를 하면 평안을 지킨다고 알려주는 이유다.

입당할 때 독한 맹세를 하면 ‘기호’가 찍힌다

‘공산당 선언’의 서두 첫 마디에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산당이 마귀의 유령이라고 자칭했다면 중공당원,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 가입할 때 공산당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희생을 선서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령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다. 공산당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은 마귀의 유령에게 목숨을 바치는 과정이다. 이것은 독맹세이다. 독맹세를 함에 따라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의 기호가 찍힌다(이 기호는 다른 공간의 몸에서 체현된다). 수련계에서는 이 마귀의 기호를 ‘집승의 기호’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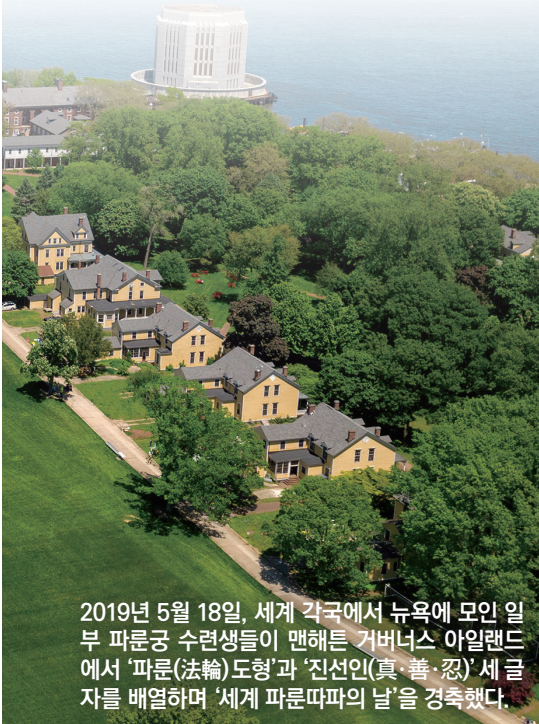
독한 맹세를 폐기하고 사악을 멀리하다

‘성경-계시록’은 한편의 위대한 예언이다. 그중 적룡(紅龍), 붉은 짐승(紅獸)에 대한 논술이 있는데, 언젠가 사람들이 속아서 적룡(붉은 짐승)에게 독맹세를 하면 ‘집승의 기호’가 새겨지는 것을 약칭으로 ‘집승의 기호’라고 했다. 많은 민간의 고수들은 모두 공산당은 적룡(붉은 짐승)의 특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계시록’에서는 또 ‘집승의 기호’를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직면해야 할 생사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삼퇴를 권유하는 것은 사

나는 진심으로 “엄마의 아들로서 괴로워하시는 엄마를 본 제 마음도 매우 고통스러워요!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라는 이 마음마저 느끼지 못하셨나요? 방금 의사가 내린 결론을 듣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봤어요. 이제 당신의 친아들이 희망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왜 한번 해 보려고도 하지 않나요? 이런 때에 모자간에 속마음도 나누면 안 되나요?”라고 말했다.

한 달여 동안 어머니는 내 모든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 사이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어머니는 약간 감동된 표정으로 “그럼 말해봐.”라고 말씀하셨다.



2019년 5월 18일, 세계 각국에서 뉴욕에 모인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이 맨해튼 거버너스 아일랜드에서 ‘파룬(法輪)도형’과 ‘진선인(真·善·忍) 세 글자를 배열하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첫 번째 신기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가까이 앉아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직접 본 파룬궁이 각종 불치병을 치유한 사례부터 중공이 ‘텐안먼 분신자살’로 죄를 뒤집어씌운 진상, 그리고 파룬궁이 널리 전해진 성황, 파룬궁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어머니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을뿐더러 어머니는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2008년의 선원(神韻) 만화 CD를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보고 나서 정말 순식간에 배가 고프다고 했다. 나는 남은 만두 여덟 개 반을 데워 드렸는데 어머니는 단숨에 다 드시고서 침대로 가서 잠들었다. 한 달여 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편히 잠든 것은 처음 봤다. 저녁에 우리 작은 이모가 와서 밥을 해 드렸는데 어머니는 밥 한 그릇을 다 드시고 구토 반응이 없자 “이건 좀 신기하네!”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신기

물론 어머니께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권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오직 대법만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어머니는 상태가 좀 나아졌지만 사람의 관념이 어디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전에 그렇게 반대했고, 책을 훼손하고 대법을 비방하는 일을 많이 했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신불(神佛)을 믿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줄곧 연공을 하려 하지 않았다.

또 화학치료를 하러 갈 날이 왔는데 바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반응이 뛰어난 화학치료를 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께 리홍쯔 사부님 광주 설법 녹음이 들어 있는 MP3를 드렸다. MP3를 드리며 “오후에 화학 요법을 해야 하니 힘들 땐 들어보세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받았으나 나는 어머니께서 들으시겠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서 어머니께서 오후 화학 요법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 수 없었다. 퇴근하자마자 나는 회사에서 다그쳐 병원으로 갔는데 화학 요법은 끝날 시간이 다 되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MP3를 듣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내가 온 것을 보고 감격한 듯 이어폰을 뽑고 연신 “정말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번에 돌아가면 너와 같이 연공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정말 놀랐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

어머니는 “15분 정도 화학요법이 진행됐는데 온몸이 뼈까지 아프기 시작했어. 참다못해 아침에 네가 준 MP3가 생각나 들어 봤는데 듣다 보니까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들으면 들을수록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아픈 느낌마저 사라졌어!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해! 너무 신기했어!”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는 어떤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 어머니처럼 관념을 바꾸자 사부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없애 버려주셨다. 이것은 정말 이전의 화학요법의 약물보다 더 무서운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어 닷새 동안 계속된 치료에서 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심지어 환자 답지 않았다.

사실 사부님의 말씀을 들던 날부터 어머니는 입맛이 당겼다. 화학 치료가 끝난 후 오후 5시만 되면 집안의 친척이 밥을 가져오는데 어머니는 거부좌하고 병상에 앉아 밥을 우걱우걱 드셨다.

어머니는 금세 온몸에 힘이 나셨고 친척에게 밥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식사할 시간이 되면 나와 함께 산책하며 병원 입원부 아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며 그동안 견지 못했던 병태를 털어버렸다.

화학 요법을 멈추다

화학요법은 네 번의 치료 과정으로, 매 치료 과정 사이에 2주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어머니는 나와 함께 집에 가 연공하고 『전법륜(轉法輪)』(파룬궁 주요 저작)을 읽으셨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좋아졌다. 내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초토화돼 24만 명이 죽고 16만 명이 다쳤다.

남아시아 큰 해일에서 행운의 사람들

2004년 12월 26일, 큰 해일이 오기 전에 바닷물이 잠시 빠지자 많은 관광객은 백사장의 아름다운 조개를 보고 달려가 줍거나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기이한 해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한 원주민이 오히려 “빨리 도망가라, 해일이 온다!”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으면서 그가 흥을 꺾다고 쫓아냈다.

한 중학생이 자기가 배운 지리 지식으로 어머니에게 해일이 정말 온다고 하자, 어머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딸을 끌고 높은 곳으로 뛰어갔다. 옆 사람이 알게 된 후 어떤 사람도 따라서 달렸다. 몇 분 후에 해일이 닥쳤고, 바닷물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삼켜버렸다.

필리핀 산사태 생존자들의 증언


2006년 2월 17일, 필리핀 라이트주 쿤사 후궁 마을은 산사태로 매몰됐다. 마을은 깊이 9m, 길이 4000m, 폭 500m의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는데 그 아래에는 마을 전체 3천여 명의 시체가 묻혔고, 생존자는 57명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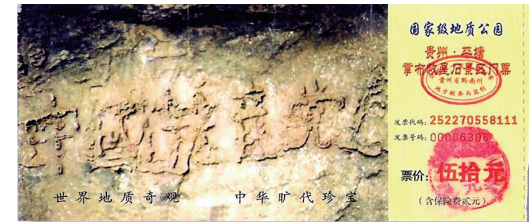
취재에서 생존자 57명은 기자에게 증언하기를, 재난 발생 3일 전에 흰옷을 입은 신비한 노부인이 마을에 와서 사람이 비교적 많이 모인 잡화점과 초등학교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즉각 대피하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노부인이 거듭 권유하고 경고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라고 놀림을 당했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3일 후 재난이 발생했다.

구이저우(貴州) ‘장자석(藏字石)’의 경고

2002년 6월, 2억 7천만 년 전의 거대한 바위가 구이저우성 핑탕현 장푸(掌布)향에서 발견됐다. 바위 단면에는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產黨亡)’이란 글자가 가지런히 배열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망(亡)’자가 좀 더 컸다.

전문가 고찰과 감정을 통해 이 6개의 큰 글자는 자연적으로 형성됐고 인위적인 가공 흔적이 없었다. 당시 인민일보, 중앙방송국, 광명일보, 과학기술일보, 신랑망, 동방망, 신화망을 비롯한 국내 100여 개 매체가 모두 특정 제목으로 보도했다. 인터넷에서도 관련 사진을 찾을 수 있는데, 물론 그들은 감히 마지막 그 글자를 꺼내지 못했다.

억년 전의 거대한 바위가 붕괴하더니 갑자기 ‘중국공산당이 망한다’라는 표어가 나타난 것이 우연일 수 있는가? 사실, 세계 각 민족과 국가에 전해지는 많은 예언은 모두 중공의 발생과 멸망,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킬 것이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그 추종자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참상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하늘이 ‘진실한 말은 바위가 한다’는 방식으로, 세인에게 하늘이 중공을 멸망하는 큰 재앙이 닥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은 아닐까? 



구이저우성 핑탕현 ‘장자석’ 경관공원 입장권. ‘중국공산당 망(亡)’이라는 여섯 글자가 또렷하다.

재난 위기가 온다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옛말에 “하늘은 살아있는 생명을 아껴주는 덕목이 있다(上天有好生之德).”라고 한다. 큰 재앙이 오기 전, 하늘은 왕왕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거나 가리켜주어 재난을 피하게 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민족과 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후 세인에게 반복적으로 주의를 준다.

일본 역사상의 시라호 마을

‘일본 민속학 번역집’의 기록에 따르면 야에야마에는 일찍이 시라호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의 한 어부가 바다로 나갔다가 인어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인어가 어부에게 입을 열어 “나는 내일 해일이 닥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라고 말했다. 어부는 듣자마자 공손히 인어를 바다로 방류하고 뱃머리를 돌려 시라호 촌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내일 해일이 올 것이니 빨리 피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튿날 조수가 근해까지 물러갔다. 시라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변에 가서 물고기와 조개를 주었고 주울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때가 이미 늦어서 마지막에는 모두 해일에 휩쓸려갔다.

탕산 대지진을 피한 작은 마을

1970년대에 탕산(唐山)시 교외의 작은 마을에 팔순이 넘은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부농 출신이기에 수년간 줄곧 이 마을의 통제를 받아왔다. 노부인은 종일 묵묵히 일만 할 뿐, 말이 없었고, 더욱이 남과 논쟁도 하지 않았다.

1976년 7월, 탕산대지진이 발생하기 바로 이틀 전, 노인은 갑자기 마을 간부 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빨리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전했다. 마을 간부는 들은 후에 그녀가 허튼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쫓아냈다.

노인이 단념하지 않고 또 마을 간부를 찾아가 설득했지만, 마을 간부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결국, 노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로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담보했다.

마을 간부는 마침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 즉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틀 휴가를 주고 빨리 이곳을 떠나 외지로 피하라고 통지했다.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튿날 저녁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전 탕산 지역이

찰나에 이것이야말로 어머니 본연의 자애로운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연속 세 번의 치료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비록 화학요법을 계속했지만 고통은 전혀 없었다. 이 독소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날, 어머니의 주치의가 검사하러 왔다가 병상에 앉아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연신 경탄하며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환자를 치료했는데, 당신같은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당신은 백혈구조차도 보충할 필요가 없으니, 이게 어디 환자 같아요!”라고 말했다.

의사의 말은 어머니를 일깨워주어 4회차 치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마침내 파룬따파를 굳게 믿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독서와 연공을 하고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모든 지표가 정상적이고 포도상 귀태도 사라졌다.

어머니에게 일어난 신적(神跡)은 집안의 많은 가족의 관념을 바꾸게 했다. 어머니 스스로도 늘 생각했다. 화학 유독물이 매일 세 시간 동안 몸에 들어가는데 왜 사부님의 설법만 들으면 괴로운 기분이 조금도 들지 않을까? 정말 만병통치약보다 더 신비로웠다. 나는 어머니께 파룬따파는 불법(佛法) 수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불(佛), 도(道), 신(神)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번 신적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파룬따파가 이토록 비상하다고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파룬공을 수련한 지 13년이 됐다. 지금의 어머니는 건강하고 성품이 자상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실 어머니가 겪으신 것은 파룬공 수련자의 눈에는 정말 ‘평범’한 일이다. 파룬따파가 전해진 29년 동안 이런 신적은 일일이 다 셀 수 없이 많다.



조사보고: 파룬공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탁월한 효과

여러 가지 조사에서 파룬공은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있어 효능이 탁월하다고 나타났다.

1998년 9월, 중국 국가 체육 총국은 파룬공 수련생 12,553명에 표본조사를 하였는데 질병의 완쾌와 기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 77.5%이고, 거기에 병세가 호전된 20.4%를 더하면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능은 97.9%에 달했다.

1998년 10월, 베이징 시청(西城)구, 충원(崇文)구, 동청(东城)구, 쉬안우(宣武)구, 자오양(朝阳)구 5개 지역에 대해 각 구에서 총 200여 곳 파룬공 연공장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했는데, 유효 조사 인원은 12,731례이다. 그 결과 파룬공이 병을 제거하는 총 효율성이 99.1% 보였고, 이 중 완치자가 58.5%, 체질 증강자 80.3%, 정신적 개선자는 96.5%였다.

20년간 마약에 빠졌던 스웨덴 음향사, 기이한 책을 만나 중독을 떨쳐버리다

스웨덴 베스테로스(Vsters)시에 사는 존(Johan)은 올해 39세인 음악 프로듀서 겸 음향 엔지니어다. 환칠한 키에 호쾌한 그는 순박함과 선량함, 부드러운 면모를 갖고 있었다. 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불혹의 나이에 가까운 행복해 보이는 사내아이가 20년 가까이 독극물에 빠져 절망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다녔다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다. 존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의 그는 과거와 전혀 다른 전반적으로 사람이 마치 환골탈태한 것 같이 달라진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무엇이 존에게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어둠 속의 서광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자질로 총명하고 음악을 좋아했던 존은 자라면서 피아노를 잘 칠 뿐만 아니라 작곡도 잘했다. 불행히도 부모의 이혼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 게다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 어린 나이에 마약에 중독돼 이로부터 20년 가까이 마약을 흡입하고 흡연하고 폭음하며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차마 지난날을 돌이켜 볼 수 없는 저는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약 중독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저는 마약을 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

다. 저는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마음이 항상 허전했어요. 2011년 오랜 친구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소개해준 후부터 저는 어둠 속에서 광명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경험을 회상할 때 존은 매우 감개무량했다.

“처음으로 『전법륜(轉法輪)』을 읽을 때 진선인(真善忍)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에 박혔고, 읽는 내내 에너지가 체내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책은 과거의 저의 잘못된 관념을 많이 바꿔놓았으며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을까? 그때는 확실히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존은 말했다.

『전법륜』을 읽은 후부터 존은 다시 마약을 끊으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오랫동안 독극물에 의존해 왔기에 몸에 있던 그런 나쁜 취미는 조금도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도 파룬궁 연마를 견지하지 못했기에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한 과정은 정말 험난했다. 독을 마시기는 쉬워도 끊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그는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또 7년을 고생했다.

간 것을 보았다. 승강기, 평교(平橋) 로프 위치는 냉각탑 안에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승강기는 탑에서 겨우 2~3분 정도 내려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거푸집 하나가 떨어져 내려왔다. 나는 누가 조심하지 않고 충돌해서 떨어지는 줄 알았다.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 냉각탑 노동자들과 거푸집, 시멘트, 철근, 삼각대 등이 엉켜 빙빙 돌면서 탑 안으로 추락했다. (냉각탑 모양은 바닥이 넓고 위는 좁음). 내가 서둘러 탑 바깥 쪽으로 5~6보 정도 달려갔을 때 탑 위쪽에서 무언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땅에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떨어진 거푸집, 콘크리트, 철근이 옆에 있었는데 1분 남짓 지나서야 겨우 다 떨어진 것 같았다. 안전 통로도 부서졌다.

나 자신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았고, 몸에 먼지만 묻었다. 일어나 탑 안에서 냉각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아직 생존자가 있는지 있는지 살펴봤지만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서둘러 현장에 가서 연속해서 네 구의 시체를 파냈다. 네 번째는 내 아들인데, 아들의 시체가 시멘트 속에 빠져있었다. 이번 사고로 우리 마을에서만 10명의 청장년이 불행히도 재난을 당했다. 파낸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참혹해 차마 볼 수 없었다.

이번 사고 원인은 냉각탑의 가장 윗바퀴 높이가 약 4m 콘크리트 건축물이 제대로 굳지 않아 냉각탑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

데, 위에서 작업하던 74명이 구조요청도 못하고 추락해 탑 밑바닥에 묻혔다.

후사를 처리하던 중 아내의 언니가 나에게 삼퇴(喪告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해줬고 그리고 내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었기 때문에 불의의 재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알려줬다. 나는 꿈에서 막 깨어난 듯 파룬궁의 비범한 위력에 감탄했다.

처형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로, 2년 전에 내게 파룬궁이 무고히 박해받는 진상을 알려주고, 공공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성심성의껏 외우면,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나는 당시 소년선봉대 탈퇴에 동의했다.

작년에 처형은 또 내 아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고 삼퇴를 권유하면서, 늘 밖에서 일하는데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성심성의껏 외우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아들은 무신론의 영향으로 믿지 않았는데, 결국 큰 재난을 면하지 못했다.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재난이 순식간에 닥친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내가 몸소 겪은 사실은 파룬궁 수련생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중공의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말며,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고, 어서 빨리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해야만 재앙이 닥칠 때 하늘의 보우를 받을 수 있다! 福





장시 평청발전소 대형 사고 현장.

장시 평청발전소 대형 사고 생존자의 회고

글/ 이명(佚名)

2016년 11월 24일, 장시(江西) 평청(豐城) 발전소 냉각탑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냉각탑 지붕의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 한 토막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냉각탑 위에서 시공 중이던 노동자 74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 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나는 현장 목격자이자 생존자로서 큰 재난에서 다행히 탈출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며 무섭다.

나는 장시 평청 발전소 냉각탑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 당시 냉각탑은 80m 가까이 높이

까지 세워져 있었다.

2016년 11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나는 다른 같은 팀 노동자 두 명과 함께 공사장에 갔다. 도중에서 나는 창고에 나사를 가지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고, 그 두 노동자는 먼저 공사장으로 갔다.

당시에는 교대 시간이 아니어서 탑 위의 이 팀의 노동자들은 이미 한 시간 남짓 일을 했다. 나는 창고에서 나와 방금 나와 함께 있던 그 두 노동자가 승강기를 타고 탑 위에 올라

연공(煉功)을 한 후 마약을 가볍게 끊다

어느덧 2018년 가을, 고통에 시달리던 존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불규칙한 생활 방식은 그의 몸을 점점 더 나빠지게 했고, 일과 생활도 엉망으로 뒤엎혀 있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마치 인생의 끝에 온 듯이 정신이 무너지려 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마음속으로 거듭 소리쳤다. “나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길을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이때 문득 “『전법륜』을 읽겠다, 파룬따파를 수련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순간 모든 걱정과 초조함 공포와 불안은 전부 사라졌다.

존은 또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존은 “책 속에는 예전에 저의 많은 의혹을 날날이 해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다시 한번 읽고 싶었습니다. 휴식할 때 저는 몇 시간 동안 연속해서 읽을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책 속에 내포된 것이 매우 깊다고 느껴지며 볼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법륜』은 제 마음의 자물쇠를 열었고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2주 후, 존은 근 20년 동안의 마약 중독을 가볍고 기적적으로 끊어버렸다! 얼마 후 술·담배도 끊었거니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꽃가루 알레르기까지 사라졌다.

수련 후 존은 일상에서 자신의 나쁜 옛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타인을 진심으로 잘 대해주고 부모를 이해해 주며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전법륜』을 읽고 있는 존.

가 점점 좋아졌다. 존의 심신에서 일어난 큰 변화는 그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존의 아빠, 엄마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아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들에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이제 그들은 더는 그를 위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

존은 “저는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전법륜』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파룬따파는 수많은 인간 기적을 만들었으며 저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파룬공의 진상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허난 ‘혈화(血禍)’ 피해자 연공하고 다시 태어나다

글/ 장원(章韻)

지난 세기 90년대 초에 허난(河南)성 성장 리창춘(李長春)이 대대적으로 ‘혈장 경제’를 부추기면서 중원 여러 곳에서 에이즈가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동시에 ‘혈화’라고도 불리는 C형 간염이 확산했다. 사고 발생 후 지방정부는 혈액 매매에 대해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관련 사건도 정부의 급기된 화제로 뒀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자핑(賈平) 여사는 그해 수혈로 C형 간염에 전염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로서 그가 사람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새롭게 건강을 얻은 경험이다.

인위적인 재앙

자핑은 “1991년 2월 저는 자궁적출 수술로 2,400cc의 혈장을 수혈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고 아주 빠르게 회복됐어요. 직장으로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 그해 5월 해방군 공군병원 감염병 과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이리저리 검진했지만 트랜스아미나제가 높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결국 상하이(上海)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C형 간염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저와 함께 병원에 있던 많은 환자가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어요. 그 몇 년간 수혈로 간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았는데, 병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어 특유의 대명사 ‘수혈성 간염’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제 주치의는 이 병은 치료할 수 없으니 트랜스아미나제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최후의 결과는 대부분 간 경화여서 10년을 살기는 힘들었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양의에서는 C형 간염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인슐린을 맞는 것이었다. 자핑은 가장 좋은 중의사를 찾아 매년 12가지 중약을 처방받았다. 매일 약을 한 사발씩 들이켜는데 정말 약탕에 담긴 것 같았다.

자핑은 “그 인위적인 재앙은 수많은 인간의 비극을 초래했어요. 당국이 권력을 이용해 진상을 폭로한 정의로운 인사들을 탄압해 많은 사람이 타향으로 내몰리고,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상을 간절히 원했으나 결과가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병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약을 수 없이 먹고, 치료를 반복하고, 발작을 반복하며, 때론 나았고 때론 심각했는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질병에 각종 약물의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교통 사고를 당한 쓰촨성 노인, 파룬궁 호신부가 목숨을 구해 주었다

글/ 청후이위안(程惠園)

나는 올해 78세로 쓰촨(四川)성 광한(廣漢)시 가오핑(高坪)진에 사는데, 자주 전기 삼륜차를 타고 읍내에서 구정물을 가져다 돼지를 먹였다.

2015년 2월 초, 한 파룬궁 수련생이 내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 주었을 뿐더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가 인쇄된 호신부(護身符) 하나를 선물했다. 파룬궁이 장쩌민에 의해

처참하게 당해온 것을 알기에 처음에는 두려워 내키지 않았다. 그는 “연세가 많으신데 도로를 자주 달리시면 안전하지 않아요. 이 예쁜 호신부가 평안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호신부를 받았다.

두 달이 지난 4월, 읍에서 구정물을 싣고 집에 돌아오는데 큰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나는 부딪혀 날아오른 후 땅에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앞드려 있는데 머리가 좀 어질어질했다. 이때 길을 건너던 사람이 “이 노부인은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도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딪쳐 날아왔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온몸이 아프지 않고 다만 눈이 약간 침침해 물



건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갑자기 내가 왜 죽지 않았는지 깨달았는데, 내 몸에 파룬궁의 호신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일어나 앉아 땅바닥에서 열쇠를 찾았다. 그때 화물차 운전사가 다가와 열쇠를 주워 주었다, 구경꾼이 “차가 도로 저쪽에 있어요.”라고 했다. 이때 운전사가 차를 몰고 달아났다. 내 차도

고장나지 않아서 나는 차를 몰고 집에 왔다.

이튿날 아들에게 폭죽 한 께미를 사오라고 했다. 오후에 나는 삼륜차를 타고 어제 사고가 난 지점에 도착했다. 폭죽에 불을 붙이고 파룬궁 사부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해주신 파룬따파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리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리 대사님께 절을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부근의 촌민과 도로 위의 행인들이 모두 어제 이 기이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모두 내가 파룬궁 호신부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나는 내게 진상을 알려준 그 파룬궁 수련생을 보기만 하면, 친구들에게 선물하겠으며 호신부를 달라고 한다.

하게 했다! 온 가족이 고통에 빠져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질질 끌다가는 아이를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할 것 같았다.


나는 단지 파룬궁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목걸이를 아이에게 걸어주면서 “이것은 신기한 목걸이야, 너에게 행운을 가져와 즐겁고 평안하며 건강하게 해 줄 거야.”라고 말했다. 뜻밖에 아이가 기뻐하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울면서 “외할머니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처럼 매일 ‘파룬따파하오’를 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감격에 겨운 아이의 눈물을 보며 나는 마침내 한 사람을 놓게 됐다.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신기한 목걸이를 착용하고부터 아이의 정서는 나날이 안정되어, 점점 화를 내지 않고 초조해지지 않게 되었고, 기분이 좋을 때

는 가족과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아이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우라고 일깨우고, 때로는 전통문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5학년 후학기부터 아이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매일 방과 후 숙제를 다 하고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그리고 즉석식품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분담하고 있다.

외손자는 현재 이미 6학년이 됐다.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그때 아이가 정말 망가질 뻔했다며 아이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문제가 없으니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이의 변화를 보고 우리 온 가족, 친지들은 모두 그 때문에 기뻐했다. 병원과 심리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괴상한 병이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읽는 가운데 신기하게 사라졌다. 



파룬궁 천국악단에서 활동하는 자핑(賈平) 여사.

자핑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몹시 수척해지고 허약했는데, 때론 극도로 짜증이 나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파룬궁을 만난 행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다

중국에 살면서 자핑이 접착한 것은 모두 무신론, 유물론으로서 현대 과학 이외의 것을 굉장히 배척했다. 그러나 서양 의학이 그녀의 병통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자 살려는 본능으로부터 기공과 불교를 접하기 시작했다.

“1995년, 제가 간절히 도처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파룬궁을 접했어요. 몇 달을 연마한 뒤 어머니는 느낌이 좋으며 연마해 보라고 제게 권유했어요.”라고 말했다.


자핑은 “당시 중국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많았고 서로가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적을 칭송하고 있었으

므로 연공에 대한 제 자신감을 높여줬어요.”라고 말했다.


자핑은 처음 연공하던 일을 떠올리며 “30분도 서서 버티지 못하고 가부좌는 아예 할 수 없어도 주변의 수련생이 많아 서로 격려해 줬어요. 우리는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함께 보고 『전법륜(轉法輪)』을 읽었어요. 차츰 저는 수련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련은 심성을 닦고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핑은 수련을 결심하고 가부좌가 아무리 아파도 견뎌낼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호흡기 분비물은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호흡기 질환이 다 나았고 그녀는 마침내 자유롭게 호흡하는 기분을 체험했다.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몸에 있던 모든 난치병도 다 사라졌고 치명적인 C형 간염마저 극적으로 회복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 생명이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요.”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수련이 자핑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소득은 심성이 향상한 것이다.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잘 대할 줄 알게 됐으며, 매사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했다. 머리도 이전보다 더 맑아지고 사유도 민첩해졌다. “건강한 몸, 편안한 마음, 영리한 머리가 생겨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직 석사학위를 땀어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25년째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자핑은 “이렇게 좋은 수련의 길을 만나게 돼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며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왜 ‘9자진언(九字真言)’이 사악을 쫓고 바로잡을 수 있는가?



지금 갈수록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라는 ‘9자진언(九字真言)’을 성심성의껏 읽으면 사악을 쫓고 바르게 할 수 있어 재난이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구결을 외우면 왜 사악을 쫓고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현대 과학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세포 생물연구에 종사하는 올슨 여사는, 선한 일념으로 생성된 미시적 물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밝고 따뜻하고 사심 없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환자가 마음으로부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法輪大法好, 真善忍好)’를 읽으면 우주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되는데, 이렇게 강하고 극히 미시적인 에너지는 읽는 사람의 세포에 관통되어 순식간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베트남 소녀가 자신의 인생 아이콘을 찾다

2011년 21살의 베트남 소녀 안연(Annhien)이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실수로 그녀를 밀어냈는데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 심각한 교통사고 후 안연의 삶에 척추 통증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걷기는 물론 옷거나 숨 쉬거나 기침을 할 때도 아팠다. 지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반신은 여전히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은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그는 “예전에 저는 기업의 회사 표지 디자인 일을 해왔기에 내 삶의 아이콘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머리속에 그림 하나가 떠오르곤 했어요. 파룬 도형을 보는 순간 이것이 내 머리속에 그 그림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인생의 목표를 정말 찾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2015년 안연은 한국 강원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한국어 문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더 좋은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완화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정상적인 걷기란 안연에게는 여전히 먼 얘기만 같았다.

하루는 같은 기숙사의 베트남 룸메이트가 안연에게 파룬공(法輪功)을 소개하며 “법을 배워 수련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평소 수련에 관심이 많고 사람이 왜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안연은 곧 『전법륜(轉法輪)』을 읽으려고 했다. 표지를 훑어보고 파룬(法輪) 도형을 본 순간 안연

사실 척추 한 곳을 제외하고 선천적인 팔꿈치 관절 기형으로 팔을 뻗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며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고통에서 한순간도 헤어나지 못했던 그녀는 파룬공을 수련한 뒤 기적처럼 몸이 좋아졌다.

연공 동작 중에는 팔을 쪽 펴거나 등을 굽히는 동작이 있는데, 동작이 능숙해지면서 안연은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연공을 한 지 석 달 만에 통증이 모두 사라지고 정상으로 걷기까지 하면서 안연은

어린 외손자의 괴질을 치료한 목걸이

글/ 루이잉(瑞英)

펜을 들어 이 진실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자 감사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안타깝고 두려운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019년 외손자는 5학년 때. 무단걸석, 학교 가기 싫어하고, 숙제를 하지 않고, 선생님께 대들며, 친구들과 자주 충돌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항상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우리 딸은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면 감히 받지 못했다! 외손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고, 집에 머무르기도 싫어했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일깨워주고 위로해도 안 돼 정상적인 소통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나중에 우리는 아이의 행동이 갈수록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미가 거칠어지고, 쉽게 화를 내고, 발광하고 자주 고함치고, 울부짖고, 때를 쓰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졌다. 어떤 때는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멀지 않은 큰 상점에 가서 놀거나, 아니면 상가의 핸드폰 전문점에 가서 그곳의 샘플 휴대폰을 가지고 놀거나, 혹은 그곳의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데, 한 번 있으면 온종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식구들이 찾아가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데 상가에서 9시에 문을 닫아서



야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 외손자는 광적으로 크게 소리치고 심지어는 감히 사람을 때리고 욕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3시가 넘으면 일어나는데, 그가 일어나기만 하면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졌고 이웃도 편안하지 않았다. 외손자는 때로 혼잣말로 투신하러 가거나 집을 나가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온종일 그를 걱정하며 그에게 언제 무슨 의외의 일이 생길까 두려웠다.

친지들도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아이의 기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가 빨리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는 아이를 휴학하고 해당 전문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었다. 이와 함께 유명 심리상담사를 불러 일대일로 아이를 가르치는 등 의사소통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아이의 그런 의기소침한 표정과 어두운 얼굴을 보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졸이고 조금

수술 전 흉수증이 신기하게 사라지다



글/ 자링(佳翎)



2020년 10월 중순에 외숙모가 미열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가슴에 액체가 고여 있었다. 그런 후에 흉과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흉강 인류 수술을 했다. 11월 중순까지 흉수는 매일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액체는 붉은색이었다. 흉과 병원과 종양 병원이 연합하여 신경성 내분비 종양으로 판명했는데 악성 종양의 악성 종양으로서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었다. 현재 이런 종양에 대해 좋은 치료 방법이 없고 환자는 결국 통증으로 죽거나 아니면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

외숙모는 칠십이 넘어도 학문적 소양이 있어 그녀에게 병세를 숨길 수 없었는데 자신의 병세를 알고 매우 슬퍼서 종일 울었다. 외삼촌이 내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말했다. 전염병 상황으로 병원에 면회하러 갈 수 없어 저녁에 외숙모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외숙모에게 전화하자, 외숙모는 쉼 목소리로 희망이 없다고 했다. 나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생명을 담보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어요.”라고 하자, 그녀는 “반드시 들겠으니 말해 봐요.”라고 했다. 나는 “매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眞善忍好(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

니다)’를 외워 보세요.”라고 말했고 외숙모는 “그래, 네 말대로 할게.”라고 말했다.

전화한 날은 2020년 11월 말의 화요일인데,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기에 가족들은 중의사를 보러 가려 했다. 하지만 중의사를 보러 가려면 반드시 인류 관을 제거해야 했다. 일단 관을 제거하면, 3일 정도 환자는 흉수에 의해 호흡 곤란이 오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인류 수술을 받으면 매우 고통스럽게 된다.

당시 금요일 오후에 퇴원한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화요일 저녁 전화한 후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기적이 나타나 1달 남짓 흘렀던 액체가 갑자기 멈췄다. 외숙모는 믿을 수 없어서 간호사와 의사를 찾아가 세 번 검사했는데 세 번 다 흉수가 없어졌다는 결과였고, 외숙모는 금요일 오후 순조롭게 퇴원했다.

토요일 아침 외숙모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감사하다며 기적을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제게 감사하지 마시고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맞아, 맞아, 나는 매일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수시로 ‘파룬따파하오, 眞善忍하오를 읽고 있는데 머릿속까지 깨끗해졌어.”라고 했다. 나는 “계속 꾸준히 읽으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외숙모가 퇴원한 지 한 달 남짓 된 양력설 연휴에 나는 외숙모를 뵈러 갔다. 외숙모는 안색이 매우 좋았는데 중의사가 중약을 처방해 주었다며 거의 나았다고 했다. 이 기간에 흉과 병원에 가서 두 번 재검사를 받았는데, 주치의는 “아주머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두 번 물을 빼려고 했는데 결국 당신의 흉수는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뼈 형태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움직여도 아프지 않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큰 변화였어요. 지금은 팔을 뻗고 몸을 굽혀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안연은 정신적으로도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수련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더는 예전처럼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부족함을 자주 반성하기에 대인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머리도 더 맑아져서 논문을 쓸 때 생각의 흐름이 유창해 쓰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안연의 부모는 아픈 몸으로 유학을 떠나는 딸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보시고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이제 딸은 건강해졌고 성격도 좋아진 데다가 더 예뻐졌어요.”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은 안연과 상의하시는데 안연도 지혜롭게 건의와 방향을 제시해 줬다.

안연은 마음으로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인연이 닿은 사람에게 파룬따파가 얼마나 좋으며 파룬공을 비방하는 중공의 거짓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세계 각 민족 억만 명과 인연을 맺은 ‘천고기서(千古奇書)’

『전법륜(轉法輪)』은 파룬공(法輪功)의 주요 저작이다. 1995년 1월 『전법륜』이 출판된 후, 즉시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6년, 『전법륜』은 ‘베이징일보’ 등 신문에서 “연간 10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선정됐다. 당시 중국에서 1억 명이 파룬공을 수련했다. 1999년 7월 이후 파룬공은 중국에서 중공의 온갖 박해와 모함을 당했다. 하지만 『전법륜』이 책은 오히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공개 발행되고 있다. 40여 개 언어로 된 버전은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책이다.

『전법륜』은 천고기서(千古奇書)라 불리며 옛적부터 인류가 끈질기게 추구해 왔으나 이해할 수 없었던 우주와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냈고,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이던 수많은 고질병 환자의 질병을 없애버렸으며, 전 세계 역대 사람들의 심신을 이롭게 했고 도덕을 회복시켰다.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루마니아 프로그래머가 운 좋게 전기를 만나다

글/ 상칭멘(向晴勉)

쿠치(KukiSzabolcs)는 루마니아의 프로그래머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애착하므로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있었다. 2003년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실명에 가까워지자 그와 가족들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그의 마음이 온통 암울할 때, 그의 삶에 기적과 같은 전기(转机)가 일어났다.



쿠치와 딸

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력 상실이 아니라 거대한 심리적 압력이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쿠치는 요가도 하고 기공도 좀 배웠지만, 그런 방법들은 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현대의학 밖에서 전기(转机)를 얻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중국에서 온 공법 파룬궁(法輪功)을 추천했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해 알아 볼 때 파룬궁이 진선인(真·善·忍)을 원칙으로 수련을 지도하자 이 법이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에는 서 있는 자세로 완성하는 네 가지 동공과 가부좌 공법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수련자에게 품행을 향상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법리는 『전법륜(轉法輪)』 책에 체계적인 해설이 있었다. 그래서 쿠치는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쿠치는 『전법륜』을 보고 자신이 세상을 보

당초 그녀는 파룬궁 호신부를 시어머니께 드리며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읽으면 몸에 좋다고 알려줬는데, 시어머니는 “이걸로 될 수 있다고?”라며 의심스러워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파룬궁은 우리에게 한 폰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 호의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들이 뭘 바라겠어요? 병을 얻어 고생스러운데, 성심성의껏 잘 읽으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잘못 읽어도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그녀의 시어머니는 매일 호신부를 들고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성심성의껏 읽었다. 결국, 암 증세는 갈수록 나아졌는데 후에 화학요법을 멈추고 2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한 후, 올해 초에 차분히 아무런 고통도 없이 별세했다. 온 가족 모두 “파룬궁은 정말 신기합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한 친구의 시어머니도 암에 걸렸는데 장연의 시어머니와 같은 병이었다. 나는 이 노인에게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읽으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한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도 그녀는 믿지 않았다. 매일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나 치료 따위를 하며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자녀들도 고생하고 온 가족의 수입을 거의 다 써버리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세상의 수많은 비범한 현상은 현대 실증과학이 해석할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위난 때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설령 당장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좋은 방법-‘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양성만보’: 노소 모두가 파룬궁을 연마하다

1999년 7월 박해가 발생하기 전, 파룬궁(法輪功)이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는 중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 아래 일부 중국 매체에서 당시 보도한 것을 발췌했다.



‘의약보건의신문’은 1997년 12월 4일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우선순위 파룬궁”으로 보도를 했는데 기사에서 7명의 파룬궁 수련생의 성명, 병세 및 개선 상황을 예로 들었다.

‘중국경제시보’는 1998년 7월 19일 “나는 일어섰다!”라는 제목으로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郸)시 가정주부 셰슈펀(谢秀芬)이 마비된 지 16년 만에 파룬궁을 연마하고 보행 능력을 회복했다고 보도했다.

‘양성만보’는 1998년 11월 10일 ‘노소 모두가 파룬궁을 연마하다’라는 제목으로 광저우(广州) 파룬궁 수련생 5,000명의 대형 아침 연공 및 중증마비에 걸린 광저우 디웨이피혁유한공사 통계원 린찬잉(林婵英)이 파룬궁을 연마한 후 보행능력을 회복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둘째 언니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이웃에게 백반증에 걸렸는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웃은 믿지 않으며 그건 때가 돼서 나온 것이지 외워서 나온 게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끝까지 외우지 않으셨다.

며칠 가지 않아 어머니의 백반증이 다시 왔는데, 어머니는 그제야 ‘파룬따파하오’를 믿었기에 비로소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누가 뭐라 해도 믿지 않고, 꾸준히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성심성의껏 외웠다.

현재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는 건강한 몸으로 혼자서 채소도 심을 수 있다.

아버지의 치매가 완치되다

2019년, 아버지는 노인성 치매에 걸렸는데 병원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집에 돌아가 방안에 가두어 두고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의사는 말했다. 나는 파룬궁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아버지를 부축해서 온돌에 앉히고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읽을 수 있게 한 번 또 한 번 가르쳐 주었다.

당시 아버지의 혀는 굳어서 아예 똑똑히 읽을 수 없어 자신도 맥이 빠져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만약 이 아홉 글자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병은 바로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격려해 주었다.

자신감이 생긴 아버지는 꾸준히 읽으셨다. 사흘째 읽고 나서는 혼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셨는데, 밤에 잠결에 일어나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도 않았다.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가 뛰어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할까 봐 집 주소와 전화가 쓰여 있는 간판을 목에 걸어 주었다. 그 이후로 그 간판을 목에 걸지 않았다.

나중에 아버지는 말하고 일하는 것이 완전히 정상적이어서 전혀 치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온 가족 모두 “파룬궁이 너무 신기하다!”라며 경탄했다.

나는 가족 이야기를 한 후 “지금 우리 온 가족은 공산당의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파룬따파가 사람을 구하는 정법대도(正法大道)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장옌은 매우 흥분하며 나에게 파룬궁 진상 호신부(護身符) 하나를 달라며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시게 하겠다고 말했다.



(2)

이후에 장옌은 계속해서 나에게 시어머니가 2년간 겪은 일을 말해 주었다.

는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에서 깨우침을 얻은 후, 그는 즉시 파룬궁을 창시하신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모든 저작을 찾아 하나하나 읽었다. 보면 볼수록 진정으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꼭 한 없이 넓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다.

그림자를 벗어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다

쿠치는 공산당 통치하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왜 정부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전하지만 결국 국민의 생활은 오히려 고난이 끊임없는 것인지를 의문스러웠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바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사회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쿠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폭력이 난무하는 부패한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기 싫었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파룬궁을 배우면서 쿠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사물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에서 그만한 이유와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낙관적으로 변했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집에서 쿠치는 다시는 아내와 다투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주변 직원들을 격려해 함께 일을 잘하려 했다. 그는 예전에는 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자신의 뛰어난 기량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행복한 아버지가 됐다는

점이다.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자 쿠치도 양육에 겪어야 할 여러 도전에 응할 자신이 생겼다. 시력은 파룬궁을 배운 후 약을 멈췄지만 오히려 점점 좋아지다 완전히 정상이 됐다.

2011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례 안과 검진을 받을 때 쿠치는 안과 의사에게 8년 전 녹내장을 앓았다고 말했다. 의사는 매우 의아해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하자 했고 이어서 쿠치에게 종래로 녹내장을 앓은 적이 없었다며 틀림없이 오진일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녹내장을 앓았던 사람은 눈에 흉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치는 파룬궁 수련으로 눈이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다

더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과 접하면서 쿠치는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알게 됐고 이 박해 제지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사람들에게 공산당의 사악함을 알리기 위해 쿠치는 다른 파룬궁 수련생들과 함께 도시에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產黨)’(9평 공산당) 연구 토론회를 열었고, 시장도 와서 강연했다.

쿠치는 평소, 먼 중국에 있는 일에 왜 관심을 두느냐는 말을 들으면 마틴 루서 킹의 명언으로 대답한다고 했다. “어느 곳의 불공정함은 모든 곳의 공정함에 대한 위협입니다.”

쿠치는 보편적 가치가 깃뻛히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나 적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은 물론 후손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2021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파룬따파 세계 홍전(弘傳)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1992년 5월부터 전하신 불가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이다. ‘진선인(真·善·忍)’을 근본 지도로, 다섯 가지의 간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련자의 심신을 건강히 하고 도덕을 다시 향상시킬 수 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짧은 7년 동안 파룬따파는 중화 대지에 두루 퍼졌고,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에서 심신이 혜택을 받았다.

1995년 3월,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선생은 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의 초청으로 대사관 문화처에서 설법보고회를 개최했고 이로부터 파룬따파가 세계로 전해졌다.

1999년 7월, 중국은 또 한 차례 중국 인민을 박해하는 운동을 일으켜 “3개월 이내에 파룬궁을 소멸시키겠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22년이 지났으나 ‘진선인’을 신앙하는 파룬궁 수련인들은 거대한 압력을 무릅쓰고 중국 공의 박해를 저지하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 갈수록 많은 중국과 세계 각국의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6개 주의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각국 정부, 의원, 단체조직 등에서 파룬따파와 창시인에게 보낸 표창과 감사문이 5,000여 건에 달한다. 福

생명을 구하는 좋은 방법, 믿은 사람이 이익을 보다

글/ 하이전(海珍)

(1)

장옌(張燕)은 내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한 보험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한다. 2년 전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찾아와,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에서 20여만 위안을 써도 치료가 되지 않자 의사가 집에 돌아가서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으며, 가족들은 괴로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난치병 환자가 성심성의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고 몸이 회복되었으니, 시어머니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장옌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 말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라고 말했다.

나는 “이것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을 탄압하고 박해하자 많은 사람이 가짜를 진짜로 믿고,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알리는 진상을 감히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파룬궁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대단한 것이죠. 당신이 옳고 그름을 똑똑히 알고 선량한 사람들

지지할 수 있다는 이 가장 소중한 일념으로 하늘의 보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선과 악에 응보가 따른다’라는 천리의 체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파룬따파하오’를 믿었기에 재난이 복으로 바뀐 사례가 어디에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내 가족에게 일어난 실제 사례를 들려줬다.

어머니의 백반증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파룬궁이 좋은 것을 아시지만, 중공이 두려워 내가 파룬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다.

2015년 어머니는 백반증을 앓았다. 의사는 이 병은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하며 민간 처방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시면 관촬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연공을 한 후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파룬궁이 확실히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에 매일 성심성의껏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기 시작했다.

결국 몇 달 후 백반증은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졌다. 한번은 사촌 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얼굴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는데 어머니께서는 ‘파룬따파하오’를 외우고 나아졌다고 하셨다.

